

그리스 사태로 빚대어 본 대한민국 그리고 축산업



이 영 란

서부사료(주) 대표이사
/본지 편집위원

올 해 유례없이 가뭄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모두가 애타게 비를 기다렸는데 다행히 태풍과 더불어 단비가 내렸다.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가뭄이 해결되어 타들어가던 대지가 조금은 비의 혜택을 본 것 같다. 최근 긴 가뭄 속에서의 단비처럼 우리에게 시원함을 제공해 주는 뉴스거리가 있었다. 유럽 EU 국가들 간에 골칫거리가 되고 있었던 그리스 사태에 대한 협상이 전격적으로 타결된 것이다. 불확실성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가닥을 잡아서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다. 협상의 내용은 추가 구제 금융을 주는 대신 종전보다 훨씬 더 강도가 높은 수준의 긴축정책이 제시되었고 그리스는 이와 같은 채권국들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부채 탕감을 요구하며 유로-존을 탈퇴하겠다고 강짜를 부리던 그리스가 꿈쩍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잔혹한 협상이었다고 뉴스 매체들은 대서특필을 하였다.

당연해야 하는 사실이 왜 전 세계에 특별한 뉴스거리로 또 우리에게 가뭄에 단비 같은 통쾌한 소식으로 다가와야 하는

가? 이번 협상의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은 독일의 메르켈 총리라고 한다. 프랑스의 온정주의 미국의 타협주의 또는 여타 국가들의 냉소주의와 반대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진 빛은 스스로 갚아야 한다”라는 원칙에 대한 소신과 일관성으로 그리스의 엉터리 같은 민주주의에서 파생된 무책임한 포퓰리즘과 국가적 폐거리즘을 한방에 처리하였다는 것이 뉴스의 주요 골자이다.

언제부터인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상한 일들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비상식이 통하는 이상한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다. 약자를 위한다는 논리가 왜곡되어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인 일들이 합리화되고 있다. 숭고하고 순수해야 하는 삶에 있어서의 중요한 덕목들이 이상한 논리를 뒤집어쓰고 어딘가 모르게 변질된 모습으로 세상에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들을 암묵적으로 알고 있으나 진실을 바르게 말하는 사람은 적다. 사람들이 전혀 모르지 않는 비진리 비상식들이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으나 그것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바로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극소수이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뉴스의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은 그녀가 홀로 이와 같은 역할을 해내었기 때문이다. 이번 그리스 사태를 뉴스로 접하면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시원하고 통쾌함을 느꼈으리라 생각한다.

이제 우리의 눈을 돌려 우리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우리나라의 정치·사회·경제의 단면들은 어떠한가?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현실에 가슴 앓이를 하고 있지 않은가? 비상식 비도덕 그리고 사회적 폐거리즘이 노동복지 사회복지 등등의 포퓰리즘의 탈을 쓰고 우리 사회에서 버젓이 행세를 하고 있다. 타락한 정치세력들이 약자들을 등에 업고 자신들의 권력과 세를 확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포퓰리즘의 마약을 사회 전반에 뿌리고 다녔다. 멀쩡한 사람들도 이에 도취하여 자신의 이기주의를 추켜세우며 이 포퓰리즘에 편승하고 있다. 이는 엄청난 사회적인 낭비이며 손실로서 그리스처럼 국가를 망하게 하는 사회악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세력보다 이에 안주하여 자기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무리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슬픈 현실이다.

다시 한 번 우리의 삶의 현장인 축산업계를 돌아보자. 우리는 축산업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왔다. 정직하게 가축을 사육하며 이 업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식생활을 개선하는데 기여했다.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비를 줄여서



FTA로 인한 무한 경쟁에 대비하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현재와 같은 성장을 이루어 왔다. 현재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제대로 된 시스템과 기반을 갖춘 축산 선진국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질적인 면에 있어서의 선진국 대열에 서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시스템이 돌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으나 가장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부분에서의 연구개발 능력은 답보 상태이다. 그러하기에 진정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엔 한계가 있다. 또한 한정된 국내 시장에서 제 살 깎기 경쟁으로 함께 공멸할 수 있는 양적 성장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질적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보다 양적인 성장에 치우쳐있다 보니 스스로 성장의 한계를 긋는 우를 범하고 있다. 어찌 보면 앞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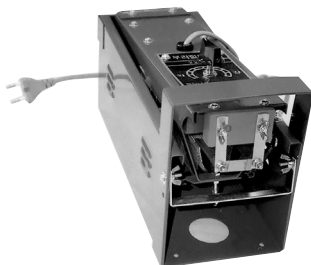
뻔하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경쟁적으로 서로가 앞다투어 무분별한 양적 성장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은 정직한 산업이다. 사육자가 눈길 한 번 더 주고 관심과 애정을 갖고 부지런히 가축들을 돌보았을 때 가축들은 그에 대해 생산성으로 보답하는 정직한 산업이다. 왜냐하면 가축들은 생명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가축들을 무생물 다루듯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새겨볼 일이다.

현재 우리 축산업계도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결국은 비상식이 합리화되고 보편화되어 스스로 무덤을 파는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번 그리스의 사태를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진단해보는 시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양계**

부리절단기 ♣ 님플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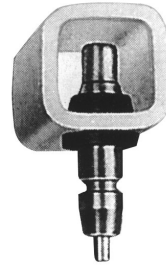
최고의 품질을 위해 정성을 다하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부리절단기(국산품)



※ 사용중 고장난 제품을 수리해 드립니다.

님플



수입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보령산업

전 화 : (02)461-7887(주·야)
휴대폰 : 010-8934-6887